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 래천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며 종자확보와 보존대책을 철저히 세움에 대한 문제, 올바른 먹이 처방을 찾아내고 첨가제문제를 해결하며 사료단위기준을 낮추면서도 돼지의 종체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돼지사양관리방법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위생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움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돼지공장들사이에 경험교환을 활발히 진행하며 따라배우기, 따라왔서기운동을 힘있게 벌일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래천돼지공장은 불수록

회한한 멋있이공장, 보기만 해도 마음 이 흡족한 공장, 우리 나라 축산기지의 본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후방기지가 또 하나 일떠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서부지구와 동부지구에 일떠선 돼지공장들에서 생산한 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는 비행사들속에서 돼지고기가 정말 달다는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약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비행사들에게 더 많은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4월22일래천돼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자기들의 일리에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담화를 철저히 관찰함으로써 항공군의 싸움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에서 병예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조선인민군장군 85돐에 즈음하여 폴스까인민군전통회의에서 폴스까인민군 명예입사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중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대원수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85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께서 폴스까인민군 명예입사훈장을 수여해드리겠다고 띄어지였다.

당당히 맞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김정은령도자의 대담과 지략이 경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군장군 85돐을 맞으며 로병들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회의의 병예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렬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13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렬명거리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분석가들은 렬명거리건설이 그이의 인민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인 제재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려는 북조선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북조선은 대양철에 즈음하여 유엔제재에 추가해서 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할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집고 렬명거리 준공으로 대답하였다고 평하였다.

이 그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로 인해 어떤 후파가 산생되었는지 우려속에 주시하였다. 그러나 북조선령도자께서는 열병식에 앞서 평양에 새로 입미선거리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북조선에 있어서 새 거리준공식은 실로 중대한 사변이다. 렬명거리는 북조선에 가해지는 유엔의 제재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이 나라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강해졌다는것을 증명하듯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다.

영원한 민족의 래양, 절세의 애국자

해마다 뜻깊은 4월이 오면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추모하는 남녘겨레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한양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은 어둠의 천하를 밝혀주는 태양의 출현이었고 우리 민족이 맞이한 최대의 경사였다고 하면서 주석님의 생애는 그분께서 지니신 위대한 천품과 시대와 민족앞에 남기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꺼질줄 모르는 태양처럼 오늘날 세계만방에 빛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제주도의 한 주민은 진정한 김일성주석님이 시야말로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의 성인, 정치원로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력사의 갈래에는 위인들과 영웅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력사책이나 병사에서도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은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있다. 주석님께서는 일제를 격멸하여 조국을 해방시켜주시었고 오만한 침략자 미국의 코대를 쫓아내고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으며 반만년역사이래 처음 보는 민족의 대통성기를 쥘치시였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산천수준을 다 겪으시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당대에 한 나라, 한 민족을 진보와 번영의 높은 병마루에 올려서주시신 위인은 없었다. 총정복도 청주의 한 교수는 세 자들에게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을 돌이켜볼수록 그분께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터놓았다. 단군민족사가 반만년을 헤아리지만 역사의 어느 갈래에도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민족과 겨레를 위해 한평생을 마치신분은 없었다. 민족에게 세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백두산에서 군사불 일격에 조국을 찾아주시신분도, 이북에 민중이 복락하는 세상을 세우시고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조선중앙통신】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려명거리건설은 그 어떤 제재도 무의미하며 조선은 자기 식의 방식대로, 대단히 안정적인 미비적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렬명거리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분석가들은 렬명거리건설이 그이의 인민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인 제재에도 끄떡없이 전진하려는 북조선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북조선은 대양철에 즈음하여 유엔제재에 추가해서 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할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집고 렬명거리 준공으로 대답하였다고 평하였다.

에스파냐신문 《엘 피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제 사회는 북조선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렬명거리를 하겠는지, 미사일발사를 하겠는지, 또 미국

리볼 입미세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훌륭한 가구들까지 갖추어진 최고급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김정은령도자께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고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토펜시, 크메르다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엠트브TV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네트TV 《이르 24》,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 방송, 한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네팔의 신문 《고르카 피드라》, 씨지르마라TV방송, 싱가포르 TV 《아시아스톡포》, 에미로이아신문 《데일리 모니터》, 영국신문 《멜버른 데일리》, 페루신문 《엘 프메르세오》,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방송과 민주공화국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에스파냐 바스크주체사상연구소 조 인티네트홈페이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